科學技術 관련 國際協力 展望

— 美·日·EC·北韓·北方諸國 —

최근 國際 技術 環境은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상호 협력도 확대되는 「競爭」과 「協力」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人的·物的 資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國際協力」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번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과거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되었던 기술 협력은 최근 EC, 소련, 동구권 등으로 多邊化되고 있다. 향후 기술 협력의 추진 방향은 우리의 기술 개발 목표와 해외의 강점 분야를 연계한 雙務協力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의 적극 참여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多國間 協力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미국, 일본, EC, 북한, 소련 및 북방 국가들과의 '92년도의 主要技術協力事項을 展望해 본다.(편집자註)

美國과의 協力

지난 수년간 韓·美 科學技術協力에 있어 최대의 懸案課題는 '88. 10월 실효된 韓美 科學技術協力協定의 再締結 문제였다. 이는 同協定이 장기적으로 양국간 협력을 擴大·發展시키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協定案이 지난 '76년 체결된 기존 협정에 비해 내용면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성숙된 차원에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한해 동안 양국 간의 노력에 의해 知的所有權의 대등한 보호와 관련한 동협정상의 중요한 條項들이 협상 타결되고, 특히 科技協定締結의 전제 조건으로 그간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特許秘密保護協定(PSA)도 우리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두 가지 協定이 '92. 1월 정상 회담 기준 중 締結된 것은 양국 간의 科學技術協力 發展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韓·美·科技協定이 締結되어 우선 韓國標準科學研究院과 美國의 국립 표준기술 연구원(NIST), 환경처와 미국 환경 보호청(EPA) 등 그 간 技術協定의 失效에 따라 廢棄되었던 기관 간 協力約定들도 다시 締結되어 협력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질적 내실화가 기대되며, 아울러 共同研究 등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명 내지 特許權의 權利配分 등 知的所有權의 보호가 새로이 規定됨으로써 美國側에서도 제반 협력 활동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PSA의 締結로 우리의 전략 방위 계획(GPALS) 참여 문제도 다시 활발히 論議됨으로써 尖端技術分野를 수반하는 양국 防衛產業技術協力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0년 兩國大統領의 친서 교환과 관계 전문가단의 相互交換 訪問 등을 통해 論議되어 온 우리의 美國 超電導粒子加速器(SSC) 建設事業 참여 문제도 '92년부터 9년 간 총 240명의 韓國科學技術者가 동 건설 사업에 참여함과 아울러 韓國의 관련 산업체가 SSC 건설에 필요한 부품과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원칙 하에 보다 구체적인 참여 추진을 위한 양국 간 協力約定을 締結할 豫定이다.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친 科學技術處 長官의 방미 기간 중 이루어진 Dr. Bromley 美大統領 科學顧問, Bartholomew 국무부 안보 과학 기술 담당 차관 등과의 회담에서 新國際技術秩序下에서 韓·美間 尖端技術同盟形成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양국 간 협력 발전의 중요한 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들어 美國은 對日競爭力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Sununu 전 비서실장, Darman 예산국장 등 소위 자유 경쟁주의론자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U.S. Technology Policy를 발표하고 22개의 國家戰略技術(NCT)을 선정 추진하는 등 大統領 科學技術政策室(OSTP)을 중심으로 한 産業競爭力 제고 노력을 감안할 때 韓美 양국은 우선 반도체, 인공 지능 컴퓨터, 전기 자동차, HDTV 등 우리 나라의 「G7 프로젝트」와 관련된 尖端技術分野에서의 共同研究開發協力과 아울러 超電導粒子加速器事業을 포함한 제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R&D 投資를 전담할 「韓·美 科學技術開發財團」의 설립·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韓·美 技術同盟構想은, 금년 상반기 중 양국 간 장관급의 科學技術共同委員會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計劃이며 또한 양국의 政府·産業界·學界·研究界 등의 科學技術專門家로 구성된 韓·美 科學技術 포럼을 構成·運營하여 협력 기반을 強化해 나갈 것이다.

日本과의 科學技術協力

日本과의 科學技術協力은 '85년 12월 체결된 韓·日 科學技術協力協定을 토대로, 종래의 수직적 협력 관계를 탈피하여 점차 互惠的 協力關係를 지향하고 있다.

동 협정에 근거한 韓·日 科學技術協力委員會가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開催되면서 기관 간 협력, 共同研究 등의 협력 과제를 導出·合意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91. 11. 21~22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會議에서는, 우리측의 "신경회로망 컴퓨터 공동 연구"(시스템 공학 연구소, 일본 전자 기술 종합 연구소) 등 20건, 일본측의 "고휘도 방사 광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포항 공대/일본 이화학 연구소) 등 17건의 協力課題가 신규로 합의됨에 따라 同委員會에서 합의 추진키로 한 協力課題는 "광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개발"(KIST/이화학 연구소) 등 기업의 協力課題 80건을 포함하여 모두 117건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政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製造業 競爭力의 弱化와 技術隔差를 극복하기 위하여 先進技術 보유국인 日本과의 科學技術協力을 더욱 擴大·強化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科學技術協力委員會, 貿易·産業技術協力委

員會 등 政府間 會議 및 基礎科學交流委員會 등 民間協力 窓口를 활용하여 日本과의 科學技術協力을 지속적으로 強化하여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基礎科學分野에서는 「韓·日 基礎科學交流委員會」(과학 재단/일본 학술 진흥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科學者交流, 共同研究 및 세미나 事業 등을 擴大하여 나갈 계획이며, 尖端技術分野에서는 컴퓨터, 半導體, 레이저, 生産自動化, 新素材, 生命工學 등을 중심으로 産業競爭力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國際共同研究 協力課題를 적극 發掘·推進하여 나갈 것이다. 環境, 에너지 등 공공 복지 기술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원인 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변환에 관한 연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기술", "디젤 엔진의 매연 저감을 위한 연소 기술의 개발" 등의 공동 연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계 분야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科學技術人力의 研修 및 科學者 交流事業의 활성화, 그리고 公共研究機關間의 자매 결연 및 협력 약정 체결 등을 통하여 兩國間의 技術協力基盤을 지속적으로 強化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능형 생산 시스템(IMS), 생체기능 해명 연구(HFSP), 지구적 환경보존 프로그램 등 日本主導의 大型 國際共同研究 프로그램에의 적극 참여를 推進함으로써 첨단 기술 정보 및 연구 성과의 이전을 促進하고, 科學技術情報 流通促進體制를 強化하기 위하여 기존의 KIST/KIMM 東京事務所를 研究所 統合事務所 운영 체제로 改編할 계획이다.

유럽과의 과학 기술 협력

유럽은 약화된 대외 경쟁력의 회복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ESPRIT, EUREKA 등 대형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2 EC 통합 작업, 구주 기술 공동체(ETC) 형성 및 구주 공동체(EC)와 구주 자유무역 연합(EFTA)을 통합한 구주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 EEA)의 '93년 창설을 추진함으로써 거대한 경제 기술 블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유럽 선진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하여 영·불·독 등 주요국과의 과학 장관 회의, 과학 기술 공동 위원회 등 외교 활동을 통하여 협력 기반을 다지고, 공동 연구, 과학자 교류, 정보 교환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EC와는 '91. 9 지적 소유권 협상 타결을 계기로 과학 기술 협력 약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조기 개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92년 중 한·EC 과학 기술 협력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92. 3월 말에는 한·EC 과학 기술 협력 분야, 방법 등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동 워크숍 주요 내용을 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이를 '92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EC 고위 협의회에서 한·EC 과학 기술 협력 기본 지침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EC와의 주요 협력 분야로는 전자 통신, 신소재, 정밀 화학, 메카트로닉스, 에너지, 생명 공학, 환경, 해양, 표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과학자 교류, 정보 교환 등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자 통신 분야에서는 ESPRIT, RACE 등 EC 공동 연구 사업과 관련한 정보 교환, 인력 교류를 촉진하며 생명 공학(Human Genome 분야 등), 환경, 에너지, 원자력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탈리아·독일·네덜란드·벨기에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9개 EC 공동 연구 센타(Joint Research Centre)와 국내 우수 연구 집단(SRC/ERC) 및 대학 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기초 과학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영·불·독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간 과학 장관 회의, 과학 기술 공동 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보다 활성화시키며, 「G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내실 있는 연구 협력을 위하여 독일과는 신소재, 레이저, 자동화 분야, 영국과는 정보 산업, 유전 공학, 해양 분야, 프랑스와는 원자력, 해양,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 공동 연구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과학 기술 교류 확대를 위하여 한국 과학 재단과 영국 과학 한림원, 독일 연구 협회(DFG), 프랑스 국립 과학 연구 센타(CNRS)와의 과학자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KIST)과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MPG) 등 연구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南北 科學技術協力

최근 世界는 蘇聯의 共產主義 崩壞, 동·서독의 統一 등으로 和解雰圍氣 속에서 民族主義 傾向이 심화되고 있으며, 韓半島 周邊情勢도 南北韓 UN同時加入, 韓國·中國 修交推進 및 北韓·日本修交推進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 南北韓 統一에 대한 關心이 그 어느 때보다도 高調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南北總理會談에서 南北交流·協力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는 「南北 사이의 화해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서명됨으로써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에 장애 요인이었던 北韓의 핵무기 개발 포기 및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핵사찰을 위한 안전 협정 서명 문제도 南北韓間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선언 채택으로 해결되어 앞으로의 南北交流·協力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밝은 展望을 던져 주었다.

현재 北韓의 개략적 科學技術 實態로는, 先進國과의 制限된 技術交流로 인한 技術導入의 저조 및 自體開發能力의 脆弱으로 產業技術分野의 生產技術은 南韓에 비하여 크게 落後되어 있으나, 군사력 강화 정책에 힘입어 일부 基礎科學 및 原子力 등 防產技術은 상당한 水準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침체된 經濟回復을 위해 합영법 公布('84)로 對外合作을 推進했으나 先進技術 移轉 등 소기 목적 달성에 失敗한 상태이며, 科學技術開發 3個年 計

劃('88～'90)에 의해 전자, 에너지, 遺傳工學 등 戰略分野育成에 注力하고 있으나, 社會主義 硏究開發方式에 따른 限界에 봉착되어 있는 實情이다.

그 동안 南北科學技術交流·協力은 상호 보완적이고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추진되어 왔으나, 양측의 정치·군사적인 선결 문제로 인하여 직접적인 科學技術交流·協力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91. 8 中國에서 南北韓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國際科學技術學術大會(연변), 동북아 經濟·技術發展 세미나(장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남북 학자들 간에 상호 접촉 및 정보 교환을 하는 정도에 그쳐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南北科學技術交流·協力은 南北韓間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상에 科學術術交流·協力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제 발굴보다는 기존에 제시해 온 交流·協力課題를 중심으로 마련해 나갈 計劃으로 있다.

南北科學技術交流協力의 基本推進方向으로서, 初期段階에는 學術大會 共同開催 등을 통한 科學技術者의 相互交流, 學術論文 등 情報交換 및 공공 복지 기술, 기초 과학 교류 등으로 협력 분위기 마련에 注力하고, 協力進展에 따라 첨단 응용 기술, 資源, 에너지, 農業 등 상호 관심 분야의 共同調査 硏究 등으로 事業을 확대해 나가되, UNDP 등 國際機構를 통한 協力도 적극 추진을 함으로써 남북 과학 기술 분야의 직접적인 交流·協力을 추진해 나갈 計劃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南北 기본 합의서에 따라 南北科學技術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북한측과 구체적인 交流·協力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 선정 및 방법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交流·協力事業의 내용으로는 남북 학자들 간의 情報交換 및 이질감 해소를 위한 연례 공동 학술 대회 개최 및 科學技術用語辭典의 공동 편찬 사업, 기후 자료 교환 등을 통한 한반도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기술 협력, 北韓의 '95년도 동계 아시안 게임 開催와 관련된 도핑 기술 지원 등이 우선 추진될 수 있는 가능 분야이며, 그 밖에도 남극 세종 기지를 통한 공동 자원 탐사 협력, 南北韓地域의 생태계 공동 조사, 국제 무대에서 대립되어 온 한글 교환용 컴퓨터 부호의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科學技術部分의 南北相互協力이 效率的으로 推進될 경우, 이는 南北韓 科學技術 발전의 契機가 되며, 다른 分野로의 점진적인 協力擴大를 促進시켜 韓半島의 平和統一基盤構築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北方國家의 科學技術協力

1. 러시아 聯邦 등과의 協力

韓·蘇間 科學技術協力은 '90년 4월 蘇聯 國家科學技術 委員會 등으로부터 800여 종의 協力 希望技術目錄을 제시받아 政府出捐硏究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여 협력 가능한 技術協力分野를 도출함으로써 최초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90. 9월에는 各界 專門家 및 政府 關係者로 구성된 최초의

협의단을 소련에 파견하여 소련의 現場 技術을 확인하였으며, 12월 모스크바 정상 회담시에는 '韓·蘇 科學技術協力協定'의 체결 및 '한·소 과학 기술 협력 양해 각서', '한·소 원자력 협력 의정서'를 서명, 교환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소 과학 기술 협력 협정'에 근거하여 '9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韓·蘇 科學技術長官會議에서는 한·소 첨단 기술 기업화 과제 추진, 한·소 과학 기술 협력 센터의 상호 설치, 高級 科學技術者 相互交流, 소련 첨단 기술 전시회의 서울 개최, 국내 출연 연구소의 모스크바 사무소 설치 등 양국간 협력 사업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 중 尖端技術 企業化 48개 과제에 대하여는 硏究所와 企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재료 가공 기술 등 20개 과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항공기 복합 소재 개발 등 5~6개 과제는 현재 시작품 제작 단계로서 '92년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소 간 人力·情報 交流 및 대소 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91년 2월 1일 자로 KIST 내에 한·소 협력 센터를 發足, 運營하여 소련의 과학 기술 정보를 수집, 국내 산·학·연에 연계 제공하였으며, 동 센터를 중심으로 소련과의 自動車·機械·素材分野 콘소시움 형성이 진행중이다. 제1차 한·소 장관 회의시의 합의에 따라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도 동 센터를 발족하고 駐在 代表의 派遣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소 과학 기술자 교류는 蘇聯의 強點分野 著名科學者를 국내 연구소·대학·산업계 등에 유치, 活用할 計劃으로 연간 50명의 科學者 交流 合議 議定書를 지난 科學長官會議시 署名을 하였으며, 현재 科學技術硏究院 한·소 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需要調査를 완료하여 '92년부터 상호 교류에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尖端技術移轉 企業化 課題 추진을 위해 소측 기관으로부터 약 80명의 소련 과학 기술자를 중·장기로 유치·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91년 12월 과학 기술 협의단이 소련을 방문하여 레이저, 항공 우주, 물리 분야 등 소련의 첨단 기술 분야 우수 과학자 11명에 대한 유치 계약을 시범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科技處 次官의 '91년 8월 모스크바 訪問時 소련 學·産聯盟과 양국 민간 차원의 과학 기술 직접 교류를 推進키로 合議함에 따라 현재 한·소 센터가 민간 기업과 협의, 민간 協力·交流計劃을 수립중에 있는 바, 동 계획이 러이사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92년부터 직접 民間交流事業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소련 연방 해체와 관련, 과학 기술 협력은 구 소련의 과학 기술 인력·기관의 90% 정도가 소재한 러시아 연방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91년 12월 과학 기술 협력 협의단이 러시아 연방의 과학 교육 기술부를 방문하여 양국 간 기존 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협력 사업의 발굴·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2 중에는 러시아 연방 위주로 기존의 첨단 기술 이전·기업화 과제, 러시아 연방 과학 기술자의 국내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지 연구사무소의 개소, 한·소 센터 기능 擴大 등을 통하여 양측간 정보 교환 기능을

보다 확충할 계획이며, 他공화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은 대러시아 연방 협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방 과학 기술자 유치는 기존의 단기적 유치 외에 3~12개월의 중·장기 유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48개 첨단 기술 국내 이전·기업화 과제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하여 80명, 한·소 과학 기술 인력 교류 계획에 의하여 20명 등 100여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을 '개인-개인', '기관-기관' 계약 원칙에 따라 국내 산·학·연에 유치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8개 첨단 기술 이전·기업화 과제는 기존 협약 체결된 20개 과제 외에 '92년 중에는 신규 과제 10개를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과제 성과의 조속한 도출을 위해 사업 평가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부진 과제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하여는 보다 집중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과학 기술 정보의 수집·보급 기능 활성화와 국내 유관 기관 간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한·소 협력 센터의 기능·인력 보강, 모스크바 연구 사무소 개소, 駐蘇 과학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 사무소·현지 상사 간 연계 협조 체제 구축, 현지 상사에 과학 기술 전담 요원 파견 등 정보 네트워크 보강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한편으로 민간의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해 군수 산업 민수화 참여 지원, 인력 및 과학 기술 정보의 수집 제공, 대소 협력에 따른 제도·절차 보완 작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中 國

중국은 國防技術을 비롯한 宇宙科學, 尖端巨大科學分野의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 우리 나라의 응용 기술과 접목시 선진국의 技術保護障壁에 對應할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은 양국 간의 關係進展을 감안, 단기적으로는 우선, 연구기관 간 협력과 人力交流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예상되는 양국의 수교를 전후하여 科學技術協力協定締結 및 科學長官會議의 개최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다.

韓·中間 科學技術協力 推進 現況은 현재 주로 民間次元에서 기관 간 협력 양해 각서 체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서 '91년 5월 韓國科學財團과 中國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및 中國 科學院 간 기술 정보 및 전문 인력 교류 협정 체결과 韓國 海事技術研究所와 중국 용접학회 간의 協力諒解覺書를 締結('91. 5)한 바 있다. 또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는 '91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中國 朝鮮族 科學者協會와 공동으로 國際 科學技術學術大會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原子力 분야의 기술 협력으로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중국 원자력 총공사 산하 핵동력 운행 연구소(RINPO)가 수행하는 중국 대아만(Daya Bay) 원전 1, 2호기의 가동 전 검사(비파괴 검사)에 대하여 '91. 3~'92. 5간 276,300 US$ 규모의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韓·中 科學技術協力 增進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管理·評價해 나

가면서 양국 수교에 대비 韓·中 科學技術協力 協定締結 등 정부간 과학 기술 협력 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研究機關間 協力 및 황해 資源探査, 氣象, 環境分野 등 국제 공동 연구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3. 東歐圈 國家와의 科學技術協力

동구권 국가와의 科學技術協力은 '89년 3월 헝가리와 科學技術協力協定을 체결한 것이 그 효시이며, '90년 12월 제1차 한·헝가리 科學長官會議를 개최하여 양국간 協力事業을 合議·推進 중에 있다.

國際共同研究課題로서 KIST와 헝가리의 자동화 연구소(Computer and Automation Research Center) 간에 '91~'92 기간 중 유연 생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양국간 합의에 따라 科學技術 情報交流, 인력 교류, 양국 간 協力事業 發掘·協議 등을 위해 부다페스트 공대 내에 '한·헝 기술 협력 센터'를 설립, 우리측 專門家 1인을 '92년 초에 파견하며, 양국의 공동 투자로 운영할 것이다. 한·헝 기술 협력 센터는 앞으로 양국 간 協力事業 推進은 물론 여타 동구권 국가와의 科學技術協力 促進의 據點으로도 活用할 예정으로 있다. 헝가리와의 이와 같은 協力事業에 대한 點檢 및 評價, 새로운 사업 합의·추진 등은 '92년 상반기 제2차 한·헝가리 科學長官會議를 통해 相互協議 調整해 나갈 것이다.

또한 東歐圈 國家와의 協力基盤을 構築하고, 이들 국가의 강력한 협력 요청에 부응키 위해, 지난 7월 科學技術處 次官을 團長으로 한 '科學技術調査協議團'이 체코·폴란드를 방문하여 양국 간 協力 擴大方案을 협의하고 協力覺書를 締結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기관 협력 진전에 따라 科學技術協力協定을 조속 체결키로 合議하였다.

체코의 경우 기타 동구권 나라에 비해 政治·社會的으로 安定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中心에 位置하고 있을 뿐 아니라 經濟·技術的 측면에서도 材料·機械·精密化學·製藥 등의 분야가 상당한 水準인 것으로 分析된 바, 앞으로 헝가리와 함께 동구권 科學技術協力의 據點 國家로서 協力事業을 展開해 나가고자 한다.

동구권 국가와의 협력에 있어서 헝가리·체코에 이어서 폴란드·유고·불가리아·루마니아 등과의 科學技術協力을 확대하여 나갈 것이며, 우선 헝가리·체코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협의 추진해 나가되, 기타 국가와도 경제 협력과 병행하여 과학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해 科學技術 人力交流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국 特化技術에 따른 著名科學技術者를 誘致, 국내 대학·연구 기관·산업계 등에서 技術支援·共同研究·講義 등의 추진이 첨단 기술 이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推進方案을 檢討·樹立 중에 있다.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